

News

전세대출 막았던 카카오뱅크·농협중앙회 등 대출 재개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4분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 제외 발표에, 금융권 전세대출 신규 대출 재개 사례 잇따라... 농협 상호금융, 20일부터 재개... 카카오뱅크, 22일부터 재개
카카오뱅크,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받지 않기로... 전월세 신규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에 신청 가능... 갱신 시 임차보증금 범위 내 가능

토스뱅크 연내 '조기 증자' 추진, 대출중단에 자본확충 시급

뉴스핌

토스뱅크, 연말 목표 조기 증자 논의 나서... 올해까지 대출 막힌 영업중단 상태에서 2% 고금리 수신상품 유지하되 역마진 대비하기 위한
추가 증가 예상 시기는 12월이 유력... 대출 중단되어 수익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2025년까지 5년간 약 1조원 증자 목표 중

'내부등급법·민영화 호재' 우리금융...증권사 인수가 급선무

뉴스1

금감원, 빠르면 이달 내 우리금융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 여부 확정 예정... 우리금융은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표준등급법 적용
내부등급법 적용하면 이전보다 위험가중자산 줄어드는 효과 가능... BIS자기자본비율 1~2%p 가량 상승 예상... M&A실단 확보에도 유리... 생보사 인수는 증권사에 비해 후순위

씨티은행, 22일 이사회... 매각 방식 확정 여부 주목

조선비즈

씨티은행, 22일 오후 5시 이사회를 통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 논의하기로... 매각 방식 확정될 경우 25일 오전에 결과 공유 예정
신용카드와 자산관리 등 사업부를 부분 매각하는 방식으로, 실사 참여 복수 금융사들과 매각 조건 등을 수개월간 협의 중... 매각 불발시 단계적 폐지 가능성도 존재

보험업계도 대출 중단 속출...삼성화재도 신규 주담대 중단

서울경제

보험업계도 대출상품 판매 중단 잇따라... 이달초 삼성화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부터 시작해서 KB손보는 약관대출만 취급, 동양생명도 부동산 담보대출 중단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협의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평균 4.1%로 알려져... 삼성생명은 지난달 DSR 운영기준을 60%에서 40%로 하향

'민식이법' 1년 반...운전자보험 가입자 급증

한국경제

5대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된 후 올해 2분기까지 총 600만 2,08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2.5% 급증... 5개사의 점유율 합계 전체 90% 육박
운전자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손해율로 보험사들의 효자상품... 개별 운전자도 감당해야 할 스쿨존 사고 위험 손실액 증가로 수요 증가 중

'위드코로나' 압박...증권사 IB 해외 실사 재개

EBN산업경제신문

위드코로나로 국내 증권사들, 간간 못했던 해외 대체투자 재개 조짐... 삼성증권, 해외 IB딜을 위해 선제적으로 현지 실사 나서...
하반기 증시 부진으로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은 전년 대비 감소 불가피...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대체투자 블라인드펀드 내놓는 상황

서학개미 "미국 비트코인ETF 투자해볼까"...코인 관련주 ↑

연합뉴스

뉴욕증권거래소에 미국 첫 비트코인 선물 ETF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상장 후 거래액 1조 1,549억원으로 역대 ETF거래액 2위
국내 서학개미들도 동 상품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에 아직 비트코인 ETF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 몰릴 조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